

유회소식

—동자부 상공부와 통합 상공자원부로—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와 통합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력자원부는 상공부와 통합되고 상공부의 명칭을 상공자원부로 변경한다.

이로써 상공부에서 1978년 독립하여 동력자원부로 신설 15년 만에 다시 통합된다.

—협회·유회학회 공동 신년교례회개최—

협회는 한국유회학회와 공동으로 유회계 '93년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1월9일 여의도소재 전경련회관 연회장에 마련된 신년교례회에는 백여명의 산·학·연관계 내빈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협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16일 제1차 이사회 및 제11차 정기총회를 갖고 92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을 심의 승인하였다.

—자동차폐유회유 '92회수실적 3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폐유회유의 회수처리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계는 6개 전문처리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폐유회유를 회수처리하여 양질의 정제연료유를 만들어 산업체 보일러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90년 8월부터 시작하여 온 이업무는 90년에 8.8%, 91년에 23.8%, 92년도에 34.0%의 회수율을 올렸다.

당초의 낙후된 회수처리시설의 근대화개체, 정제연료유의

연도별	유회유판매량(kℓ)	폐유회유 발생량(65%)	회수량(kℓ)	회수율(%)	정제연료유생산량(kℓ)
'90(8~12)	134,003	87,102	7,683	8.8	652
'91	228,803	148,722	35,449	23.8	14,890
'92	282,061	183,340	62,280	34.0	34,685

—유회유 예치금 환경처인상(안)·업계 반발—

그간 환경처가 폐기물의 회수율을 높일 목적으로한 예치금 인상유직임에 업계는 협회를 통하여 당국에 전문업체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유회유는 예치금과는 무관함을 들어 예치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수차 건의하여 왔으나 환경처의 현행 ℓ 당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환경처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유회유업계는 대경실색하고 있다.

회수처리업무를 수탁처리하고 있는 6개 처리업체는 부정으로 유출되어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폐유회유의 수량을 연간 46만드럼으로 추정하고 이는 발생예상량의 45%에 해당하는바 당국이 이부정유출을 봉쇄시켜주면 연간 80%회수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렇듯 회수를 저조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음에도 예치금의 인상으로 이를 이끌고 가는 환경처의 의도를 업계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재활용부진으로 다소의 회수율이 부진하였으나 정제연료유의 열효율이 좋은 반응을 이르켜 작년 11월부터 회수율을 웃도는 처리율을 나타내었다. 연도별 회수율·처리율은 다음과 같다.

—검찰·폐유회유사용업자 구속

수원지검수사과는 지난 2월25일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소재 원일제염(주)대표 金大植(44세)과 화성군 팔탄면소재 신양산업대표 徐丙赫(50세)을 구속하고 시흥시 신천동소재 동성금속 曹基暎(34세)등 20명을 폐유회유를 불법소각하여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金大植과 徐丙赫은 제염업자이고 曹基暎등은 주물공장을 경영하는 자로 그간 폐유회유를 불법사용하여 왔으며 金大植의 경우 91.8.10부터 93.2.12까지 4,000여드럼의 폐유회유를 연료로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폐유회유를 전문으로 팔아오다가 지난해 말 구속된 부천시 중구소재 일신정유대표 남종식으로부터 구입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외에도 폐유를 몰래 연료로 사용하여온 200여명의 주물공장등에 대해 증거와 명단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